

“종투사 인가, 마지막 기회 잡아라” 증권사, 제도개편 앞두고 속도전

미래에셋·한국투자 IMA요건 갖춰 TF 구성 등 하반기 중 신청할 듯
키움 등 4곳, 발행어음 인가 박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인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기자본 8조원을 넘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연내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 등 4조원대 증권사들은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 일제히 종투사 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IMA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8조원을 충족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뿐이다. 두 회사 모두 하반기 중 IMA 인가 신청을 구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TF를 구성하고 조직 정비에 나서는 등 IMA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강혁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 5월 진행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MA는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언급한 바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운용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IMA 인가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시작됐지만, 두 곳 모두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미래에셋증권 본사.

각사

업계는 두 회사의 연내 IMA 인가 신청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IMA는 고객 예약금을 바탕으로 중장기 자금 운용이 가능한 계좌로, 기업금융과 리테일 운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모험자본 투자 의무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조기 인가를 통해 운용 방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4조원대 증권사들은 연내 발행어음 인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이 종투사 지정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삼성증권은 종투사로 지정된 상태에서 발행어음 인가만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 중형사 입장에서 자금운용력 확보 수단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이번 인가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크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종투사 지정 요건이 ‘신청 시점 충족’에서 ‘최근 2개 연도 연속 충족’으로 바뀌고, 운용 규제도 강화된다. 일부 증권사는 요건 충족 여부나 사업성 등을 검토한 끝에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종투사를 통한 신용공여 한도는 총 145조원 수준이며, 이 중 최대 36조원 가량이 모험자본으로 유입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인가 심사에 대비해 내부통제 체계 정비,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절차상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테슬라 집중... ‘TSLL’ 1.1억 달러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상반기에 20억 사들여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도 매수세

서학개미(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주식을 놓고 줄타기를 하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7월 8~14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2X’ (TSLL)로 1억1032만달러(1526억원)를 사들였다. 이 종목은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같은기간 테슬라의 주가는 7.81%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개미들의 투자 장바구니를 가장 많이 채운 종목도 테슬라다. 상반기에만 23억3140만달러어치를 사들였다. 다음으로 많이 담은 종목도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2X’ (19억1678만달러)다.

개미들의 포트폴리오는 다양해졌다.

같은기간 서학개미들은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5626만달러(778억원), 서클은 5051만달러(699억원)씩 사들였다. 서클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유일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상장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다. 상장 첫날부터 12거래일 동안 216.53% 폭등했으며, 단기간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도 꼽힌다. 서클은 6월 상장임에도 상반기 순매수 상위 4위(6억397만달러)에 이름을 올렸다.



GhatGPT로 생성한 ‘비트코인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이미지.

미국 하원은 지난주(14~18일)를 ‘크립토워크’로 공식 지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규제 정비화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12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iM증권 리서치본부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크립토워크 지정으로 가상자산 제도 정비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표결을 앞둔 3개의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 규제 불확실성 감소로 디지털 자산 자금 유입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는 로빈후드(1530만달러)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1415만달러)도 사들였다. 미국 재무부 산하 차입자문위원회(TBAC)가 인용한 스탠더드차타드의 2028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전망치는 2조달러(약 2765조원)다. /신하은 기자 godhe@

LIG넥스원·두산 등 5곳 MSCI지수 편입

한화투자증권, 8월 정기변경 보고서 LG이노텍·CJ제일제당 등 제외될 듯

LIG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HD현대마린솔루션 등 5개 종목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지수에 새로 편입되고, LG이노텍, CJ제일제당, SKC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화투자증권은 ‘MSCI 8월 정기변경’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리뷰 결과는 한국시간 기준 8월 8일 오전 발표되며, 지수 리밸런싱

은 8월 26일 증가기준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편입·편출 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준일은 7월 15일부터 28일 중 하루로, MSCI가 임의로 지정한다.

한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LIG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 현대건설은 지난 리뷰 기준일인 4월 17일 대비 주가가 각각 88~117%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편입 기준을 충족했다”며 “스몰캡에서 스탠다드 지수로 이동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HD현대마린솔루션은 기준에는 유동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편

입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는 “2대주주 KKR이 지난 5월 지분 9.5%를 매각하면서 유동시가총액이 상승했고, 유동시가총액도 2조4000억원으로 컷오프 기준(2조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이노텍, CJ제일제당, SKC 등 3개 종목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한 연구원은 “편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스탠다드 지수에서 스몰캡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잔고 20조 돌파

지난해 17.1조에서 17.6% 급증
40~50대 가입·ETF관심 높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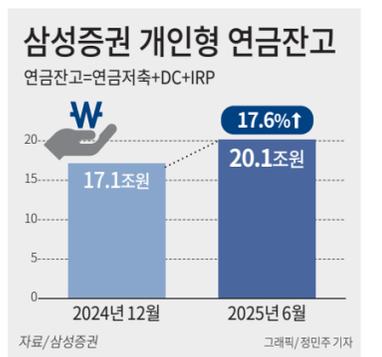
삼성증권의 개인형 연금 잔고가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40~50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고가 크게 늘었다.

1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한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올해 6월 말 기준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7조1000억원대에서 약 17.6%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연금 잔고도 21조3000억원대에서 24조3000억원대로 14.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형 연금 중 ▲연금저축 잔고가 19.1% ▲DC형 14.9% ▲IRP가 18.3% 각각 늘었다. 특히 40~50대 고객의 개인형 연금 잔고는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6월 말 13조1000억원대로 약 20.6% 증가하며 눈길을 끌었다.

상품별로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ETF는 같은 기간 잔고가 6조8000억원대에서 9조원 규모로 약 31.7% 증가해,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전체(DB·DC·IRP) 잔고



기준으로도 삼성증권은 12.3% 증가해, 퇴직연금 잔고 1조원 이상 증권사 중에서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 고속 성장 배경으로는 가입자 중심의 연금 서비스가 꼽힌다. 2021년에는 업계 최초로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다 이렉트 IRP’를 선보여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변화를 이끌었고, 가입 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 없는 ‘3분 연금’ 서비스로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업계 최초로 연금 전문 상담을 위한 별도의 연금센터를 신설해 서울·수원·대구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개인 가입자 대상의 맞춤형 상담은 물론 퇴직연금 도입 법인 대상 설명회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지난해에만 약 200여 건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원관희 기자 wkh@

KCGI운용, 채권운용팀→운용본부 격상

홍사욱 신임 본부장 영입

KCGI자산운용이 기존 채권운용팀을 채권운용본부로 격상하고 홍사욱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본부장(상무)으로 영입했다.

16일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는 채권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용 기능을 체계화하는 한편 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을 단행했다. 신임 본부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대표채권형 펀드의 하나인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펀드’ 등을 운용하며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성과를 보였다.

KCGI자산운용은 본부장에 대해 “자산배분 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운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등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채권 부문의 상품 개발과

운용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KCGI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간 액티브 주식형펀드에서 성과를 내온 KCGI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의 위상에 걸맞는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퇴직 연금 시장과 연기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KCGI자산운용의 기존 채권형 주력 펀드의 안정적인 성과에 집중하면서 채권 운용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